



**[산업]**  
포스코인터내셔널  
팜사업 환경사회 정책 선언  
“환경·인권보호 최우선”  
08



Life

**[라이프]**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의 대변신  
‘라스트오더’ 앱으로 주문  
니



플란더스의 개 주인공 네로가 보고 싶어했던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 오는 예수’

# 플란더스 개·다이아몬드·초콜릿... 안트워프 걸어보니 여기가 ‘영화 속’

## 메트로 트래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4개를 수상하며 전세계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전 작품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 중에는 봉준호 감독의 첫 작품인 ‘플란더스의 개’도 포함된다.

플란더스는 국가 이름이나 도시명이 아니다.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을 비롯해 다이아몬드의 수도로 알려진 안트워프, 유럽의 중세 도시 겐트, 음악과 역사의 도시 메헬렌, 유럽 학문의 도시이자 벨기에 대표 맥주의 본거지인 루벤 등이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을 플란더스(Flanders)라고 부른다.

동화 ‘플란더스의 개’의 실제 배경 도시는 이 중에서 안트워프다. 재미있는 것은 안트워프야말로 중세부터 현재까지 천재성과 창의성 그리고 디테일까지 갖춘 거장이자 이른바 ‘마스터’라고 부르는 장인들의 도시라는 점이다. 봉준호 감독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 본인 첫 영화 제목에 플란더스를 넣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안트워프가 배출한 천재적인 예술가들만큼이나 봉준호 감독 역시 천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술 거장 루벤스 동상과 안트워프 대성당.

### ◆네로가 존경한 천재 예술가 루벤스

봉준호 감독이 21세기 천재 영화인이라면 루벤스는 17세기 천재 미술가로 명성을 떨쳤다. 안트워프는 대놓고 자기 도시를 ‘루벤스의 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이 거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높다. 루벤스의 작품은 역동적인 구성 뿐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인체 묘사, 극적인 표현력, 생생한 색감으로 초상화와 풍경화, 종교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으며, 이후 유럽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루벤스는 또한 ‘플란더스의 개’ 주인공 네로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였으며, 동화 마지막 부분에 성당 안에서 네로가 죽어가면서 봤던 루벤스의 명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는 여전히 안트워프 대성당 안에 걸려 있다. 성당 밖에는 네로와 그의 애견 파트라슈의 조형물도 있다. 루벤스와 가족이 살았던 대저택 ‘루벤스 하우스’에는 그의 작품 뿐만 아니라 그가 모은 수많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안트워프 다이아몬드.

###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인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 주인공 마릴린 문로는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노래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트워프는 여자들이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천국이다. 지난 500년간 전세계 다이아몬드는 거의 안트워프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지금도 전세계 다이아몬드의 80%가 안트워프에서 거래된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절묘하고 디테일하게 커팅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들이 바로 안트워프 장인들이며, 새로운 차원의 이런 커팅 기술을 ‘안트워프 컷(Antwerp Cut)’이라고 부른다.

현재 안트워프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판매 매장이 있으며, 다이아몬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략 3만명이나 있다.



초콜릿 구두.

###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아카데미 상을 받은 또다른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명대사 중 하나는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주인공에게 말했던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다.”일 것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듯 다양한 속을 넣은 초콜릿을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벨기에 플랜더스다. 플랜더스 전역에는 2000개 정도의 수제 초콜릿 매장이 있는데, 가장 독창적인 초콜릿을 맛보고 싶다면 안트워프로 가면 된다.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초콜릿 장인과 함께 하는 초콜릿 워크숍이나 초콜릿 전문가와 함께 주요 매장을 돌며 시음하는 초콜릿 도보 여행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매년 3월이 되면 안트워프는 그야말로 초콜릿의 도시로 변모한다. ‘안트워프 초콜릿 위크’라는 축제 덕분이다.

### ◆주제의식과 디테일은 건축의 생명

영화 ‘기생충’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것 중 하나가 치밀하게 만들어진 세트장이다. 안트워프의 건축 역시 주제의식과 디테일에 있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철도계의 성당으로 불리는 안트워프 중앙역은 물론이고, 다이아몬드 형상을 한 항만청 역시 유명한 건축물이자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항구에 자리잡고 있는 또다른 건축물 MAS박물관은 네 방향에서 보는 광경이 각각 다르고, 내부 역시 층마다 개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건축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사진=벨기에 플랜더스 지역 관광청, 브뤼셀 공항, 벨기에 플랜더스 네이버 카페]

## 누림여행사

# 강원도 정선 하이원CC 36홀 프로모션 출시

오픈 기념 1박2일 패키지 판매

누림여행사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CC 오픈기념 1박2일 36홀 프로모션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오픈하는 하이원CC는 해발 1136m에 위치해 파72, 전장 6592m 18홀 퍼블릭 골프장이다. 밸리 코스와 마운틴코스에서 구름위의 굿샷을 하이원CC에서 즐겨보면 어떨까.

하이원CC에서 특별히 골프를 권하는 이유는 해발고도가 있어 드라이브 비거리가 10~20야드 더 나간다. 또한 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는 백두대간의 시원한 바람을 만날 수 있어 더욱 매력있는 추천 골프코스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청정지역 하이원CC에서 태백산맥의 맑은공기를 마시



오는 15일부터 오픈하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CC.

고 돌아오면 악성바이러스 등도 날려버리는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1박은 청정지역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숙박(2인1실)하며, 다양한 부대 이용시설을 이용하며 편리할 수 있다.

1인 회비는 일~목 출발은 15만5000원, 금 출발 20만원, 토요일출발 20만 5000원이다. /이민희 기자

## 코레일관광개발

# 청도군에 코로나19 확산방지 후원금 전달

청도 주민들에 위생용품 지원

코레일관광개발은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생지역인 청도군에 확산 방지를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청도군 내 주민들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날 코레일관광개발 한준희 경영혁신실장은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전환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과 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레일관광개발 김순철 대표이사는



한준희 코레일관광개발 경영혁신실장(왼쪽)이 청도군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청도지역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작은 보탬이지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 여행 단신



‘우준골’ 호수 마을. /터키문화관광부

## 터키문화관광부

# ‘흑해의 보물’ 트라브존 소개

터키문화관광부가 흑해의 숨은보물 도시 트라브존을 소개해왔다.

터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흑해는 울창한 숲으로 덮인 산악 지대와 바다가 어우러져 지중해나 에게 해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절벽에 자리한 ‘쉬멜라 수도원’과 동화 같은 호수 마을 ‘우준골’, 그리고 툴립으로 가득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아타튀르크 파빌리온’까지 터키문화관광부가 트라브존 대표 명소 세 곳을 새롭게 밝혔다. /이민희 기자

## 마리아나관광청

# 북마리아나 주지사 방한

국내 주요 여행 관계사와 회담

사이판, 티니안, 로타 섬을 품고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 랄프 델레온 게레로 토레스가 지난 2월 21일 서울을 방문, 한국의 주요 여행 관계사와의 회담을 가졌다. 주지사와 동행한 대표단은 마리아나관광청 직무대리 위원회장 글로리아 카바나, 제리 텐 이사, 워렌 빌라고메즈 이사, 마리아나 관광청장 프리실라 M. 이아코포로 구성되었다.

현재 북마리아나 제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의심 사례가 없지만, 북마리아나 제도 관광 시장과 관련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북마리아나 대표단은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대표, 티웨이항공 정홍근 대표, 제주항공 유명섭 이사 및 주요 관계자들을 비롯해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 모두투어 유인태 대표, 노랑풍선 김인중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민희 기자